

도시의 역사·생태, 시민 감성까지 녹여내는 미술작품을

고품격 문화수도를 디자인하자

(2) 흥물로 전라한 도심 조형물-대안은

공공작품 긴 안목과 호흡으로 계획·설치 행정기관 주도 아닌 새 기준·틀 만들어야

독일 중부의 중소도시 뮌스터에는 10년에 한 번 열리는 행사가 있다. '뮌스터 조각프로젝트'로 불리는 이 행사는 지난 2007년까지 단 네 차례 행사를 치렀을 뿐이지만 '카셀 도큐멘타'와 함께 독일의 대표적인 미술행사로 꼽힌다.

이 프로젝트는 지난 1977년 전쟁으로 폐허가 된 도시를 살리기 위해서 시작됐다. 10년에 한차례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작가들에게 뮌스터에 어울리는 작품을 주문하고 이를 도시 곳곳에 전시한다. 지난 2007년 행사에는 약 70만명이 방문할 정도로 뮌스터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공조각품을 보유한 도시로 탈바꿈했다.

짧은 기간에, 좁은 장소에 많은 조각품을 장식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도시와 또 기존에 설치된 작품들과 어울리는 작품들을 주문하고 설치한 결과다. 10년이란 주기는 작가들이 도시와 어울리는 새로운 작품

을 고민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광주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단 순히 좁은 공간에 많은 미술작품을 조성하고, '~지구' '~거리' 등으로 이름 짓는 수준이다. 광주 폴리(Folly)도 긴 호흡 없이 3년 사이 모두 19개의 작품이 완공됐거나 공사 중이다. 시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지 못하는 이유다.

건축물과 함께 들어서는 건축물미술작품도 천편일률적이다. 금남로 조각의 거리에서는 몇몇 작가의 작품들 3~4개씩 찾아볼 수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운영하는 공공미술포털(www.publicart.or.kr)에 따르면 23일 현재 광주지역에는 모두 481점의 건축물미술작품이 설치돼 있다. 종류별로는 조각이 374점으로 가장 많고, 회화 95점, 벽화 6점, 상징탑 3점 등이다. 대다수의 건축물에 조각 작품들이 세워져 있고 있는 셈이다.

광주지역 한 대학 교수는 "금남로 조각의 거리 실패는 특정집단이 '해먹기식'으로 작품을 선정, 조성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거리 전체를 하나의 캔버스라고 보고, 전체적으로 어떤 그림을 그릴지에 대한 계획 없이 공간을 채워 넣기에 급급했다는 말이다. 최근에는 돈벌이에 급급한 전문회사가 등장하기도 했다.

단순히 세계적인 작가나 건축가를 끌어들이는 것을 넘어 미술, 공공장소, 도시환경 등 서로 이질적인 요소들에 대한 복합적인 고려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도시의 역사적 환경은 물론, 생태적 환경, 지역민들의 감성까지 녹여낼 수 있는 미술작품을 만들어야만 진정한 '지붕 없는 미술관'이 탄생한다는 이야기다.

그런 의미에서 행정기관이 주도하는 공공미술프로젝트는 물론 건축물미술작품 설치에 있어서도 새로운 기준과 틀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공미술TF 자문위원인 안규철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원장은 "공공미술은 그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다른 방식으로 새로운 활동과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며 "시민들과 합의 없이 만들어진 미술작품은 공공미술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김영민기자 kki@kwangju.co.kr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지원포럼'이 23일 광주시 남구 송암동 광주 CGI센터에서 열렸다. 이영철 아시아문화개발원장이 지원포럼 위원들에게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개관 콘텐츠를 설명하고 있다. /나영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 문화전문가·교수·시민 등 100명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지원포럼' 사단법인으로 5월 출범

광주지역 문화전문가·교수·시민 단체 관계자, 시민 등 100명으로 구성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지원포럼'(이하 지원 포럼)이 사단법인으로 공식 출범, 광주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현안을 체계적으로 다루게 된다.

광주시는 23일 광주시 남구 송암동 광주CGI센터에서 열린 지원포럼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지원포럼은 오는 5월 중으로 발기인 대회·창립총회를 거쳐 공식 출범한다. 지원포럼 사무국은 상근 위원과 직원 등으로 꾸려진다.

지원포럼은 문화전당 콘텐츠·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시민의견 수렴,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하 나인 7대 문화권 조성 사업 연구 등 활동을 한다. 예술진흥과 문화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략도 마련한다.

광주시는 의견 수렴창구로 머물고 있는 지원포럼의 위상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지원포럼 지원 조례안을 마련

했다.

이날 문화전당 개관 콘텐츠 구성안을 설명하기 위해 지원포럼에 참석한 이영철 아시아문화개발원장은 "문화전당이 오는 2015년 개관하지만 작품을 전시할 공간에 황은·황승장치 등 인테리어 설계가 반영돼 있지 않다"고 우려했다. 그는 "문화전당에 작품 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만 무려 1000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등 문화전당의 개관을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난제라 될 것 같다"고 주장했다.

포럼에 참석한 위원들은 "문화전당의 개관 콘텐츠의 내용이 너무 막연하다", "전당을 개관하고 나서도 콘텐츠 걱정을 해야 할 지경이다", "문화전당 개관에 맞춰 일정별로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또 민주·평화·인권 등 광주정신을 녹여낸 공연·전시 작품을 문화전당 프로그램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조언도 있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빛의만평

- 김중두

웃어야 되는거냐?! 그것도 의무냐?

고흥우주랜드 조성 '탄력'

'해안특별법' 시행령 개정 남해안 선벨트 사업 속통

정부가 남해안 선벨트(Sun-Belt)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개발구역 지정 요건을 낮추기로 하고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섰다. 이에 따라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고흥우주랜드 조성 사업 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토교통부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행 개발구역 지정에 필요한 최소 면적 요건 30만㎡를 3만㎡로 완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령을 입법예고 했다.

국고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개발구역 지정 요건 중 면적 규모를 줄여 투자를 늘리겠다는 정책이다.

실제,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고흥우주랜드(조성면적 12만㎡)도 그동안 면적 규모가 조건에 맞지 않아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지 못했다.

나로호 발사 성공을 관광상품화하는 사업인 고흥우주랜드는 총 사업비 268억원(국비 39억원·지방비 39억원·민자190억원)을 들여 대규모 숙박시설과 가족휴양센터, 우주인캠프장, 타임캡슐공원 등의 시설을 조성하게 된다.

전남도는 국토부의 선벨트 개발구역 지정 요건 완화 방침에 따라 고흥우주랜드를 선벨트 사업으로 포함시켜 올해 실시계획을 마치고, 연말 착

공할 계획이다. 고흥우주랜드가 선벨트 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 정부 지원과 토지수용, 조세 부담금 감면 등이 혜택이 주어져 개발이 더욱 쉬워진다.

한편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남해안 선벨트는 전남과 경남, 부산 해안선에 연접한 35개 시·군·구(1만2753km)에 걸쳐 남해안을 동북아 경제 물류와 해양 중심으로 개발하는 프로젝트로 추정 사업비만 24조3000억원에 이른다. 전남에서는 여수 사도와 남도 생태섬, 고흥 우주해양특구 67개 사업이 반영, 추진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국고 지원은 시범사업에 181억 원 뿐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역, KTX역 활용은 경제성 미흡"

국토교통부 용역 결과

27~0.28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비용대비 편익 수치가 1.0 미만이면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부는 이번 용역결과를 토대로 광주시와 KTX 광주역 운행방안을 협의할 방침이지만 현 단계에서는 광주역 진입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강기정(광주 북구갑) 의원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KTX 광주역 이원화 사업은 경제적 타당성의 높고 낮음으로 추진 여부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며 "노후고속철도 본 사업 또한 경제적 타당성이 0.39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광주역에 KTX가 진입하지 않게 되면 송정역까지 이동을 위해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낭비된다"며 "광주시는 KTX 광주역 이원화 사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한국교통연구원에게 의뢰한 '호남고속철도 광주지역 이용자 접근성 향상을 위한 KTX 정착역 이원화 방안 연구용역'에 따르면 하남역에서 광주역까지 총 연장 2.5km의 지선을 통해 KTX를 광주역에 진입시키는 것은 접근성, 편의성, 통행 시간 측면에서는 유리하지만, 경제성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광주역을 KTX역으로 활용하는 것과 관련한 기재부의 타당성 조사에서도 비용 대비 편익 수치가 0.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문화가 있는 삶
행복한 대한민국

문화융성
행복풍성

문화로 서로의 마음을 열고, 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자긍심을 높여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언론진흥재단